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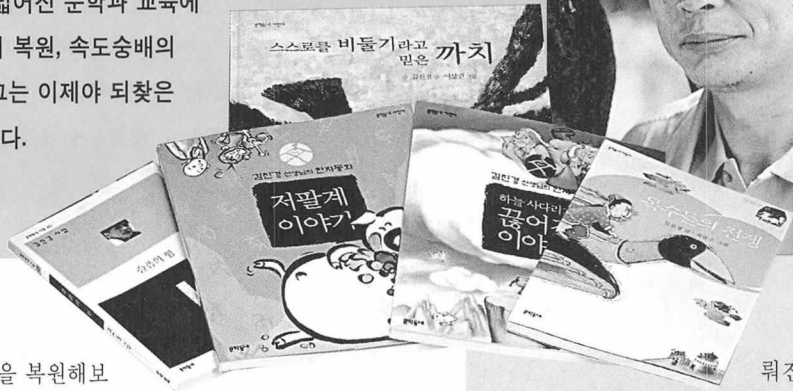
## 거대한 초원을 꿈꾸는 '낙타의 시학'

《목수들의 전쟁》 외 펴낸 시인 김진경씨

최근 다섯권의 작품을 발표하고 15년만에 교육현장으로 복귀한 시인 김진경씨. 그의 내면에는 그 세월만큼 깊고 넓어진 문학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형형하게 살아 있다. 신화적 상상력의 복원, 속도숭배의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독자와 만난 그는 이제야 되찾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과 문학을 얘기하고 있다.



김진경씨



15년만의 등교. 시인 김진경씨(47, 전동중 교사)가 이제야 비로소 국어 교과서를 들고 교단에 섰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됐다 지난 3월 복직된 것이다. 그의 복직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다섯권의 책이 쏟아져나왔다. 시집 《슬픔의 힘》, 동화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은 까치》 《목수들의 전쟁》 《저팔계 이야기》 《하늘 사다리가 끊어진 이야기》(이상 문학동네)가 그것이다.

### 지식의 형성과정 보여주는 <한자동화>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학교 밖에 있었지만 한번도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전교조 활동이나 글쓰기가 그에게는 교실 밖에서 한 수업이었던 셈이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해온 교육문제를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 점에 복직의 의미를 둔다.

김씨가 최근 동화에 주목한 것은 동화가 문학과 교육이 무난히 만날 수 있는 장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2권으로 기획된 <한자동화> 가운데 먼저 나온 《저팔계 이야기》 《하늘 사다리가 끊어진 이야기》와 《목수들의 전쟁》은 동서양의 신화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넘나들면서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발생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을 빌어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

을 복원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한자를 실마리 삼아 얘기를 엮어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동양문명에서 한자는 5천년 이상 살아 있는 언어체계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한자에는 신화와 전설, 문명의 역사가 녹아들었다.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한자가 제격이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깨우치는 《저팔계...》, 인류의 새벽인 황금시대 얘기에서 문명발달의 의미를 묻는 《하늘 사다리가...》,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고민한 《목수들의...》,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일깨우는 《스스로를 비둘기라고...》에는 그의 일관된 교육철학이 스며 있다.

“서구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리스-로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풍부한 전통에서 단절됐죠. 인간과 세계의 연관관계를 탐구하는 능력을 되찾지 않는 한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문명의 질주에 대한 진지한 반성

김씨의 다섯번째 시집 《슬픔의 힘》은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잦아들고 문명의 질주에 대한 성찰이 서정적 운율에 담겨 있다. <자서(自序)>에서 표현했듯, “속도가 빨라낸 모래알로 이

뤄진 거대한 사막”에서 “거대한 초원을 꿈꾸는 ‘낙타’의 느리지만 끈질긴 발걸음이 그의 시다.

“맹목적인 속도주의 시대에 밝히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제 시의 변함없는 주제입니다. 80년대 시들이 첨예한 대상을 향한 시적 발언이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서정의 깊이를 더한 점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겠죠.”

결국 그의 시에서 변주되는 주제는 속도숭배의 사회에서 인간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런 점에서 백제 정서나 불교적 세계관의 수용은 현단계에서 시인이 찾은 하나의 해답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마디로 ‘역설의 시학’이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은 역설이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시되고 소멸되는 것이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라져가는 것의 뿌리를 찾아가면 유년기의 경험이나 백제의 정서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김씨는 시를 몰아서 쓰는 편이다. 앞길에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그 길을 뚫는 것이 자신의 시쓰기였다고 고백한다. 당분간 그는 교사로서, 동화작가로서 아이들과 독자를 만나게 될 듯하다. — 박천홍 기자